

# 일흔이 넘어도 잊지 못하는 한글의 매혹



《청계천은 살아있다》 이경재 | 가람기획 | 384쪽 | 9,000원  
《한양 이야기》 이경재 | 가람기획 | 384쪽 | 9,000원



이경재 옹(74)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16대조가 서울 새문안 오궁골에서 살기 시작해 한번도 떠난 적 없으니 정말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서울 토박이 중에 토박이인 셈이다. 이런 그에게 청계천 복원이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말은 찬반 贊反에 앞서 회한에 젖게 한다.

“행정수도만 옮겨간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서울을 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감투가 없는 서울이 되면 신라의 경주나 백제의 공주처럼 잊혀져 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청계천도 마찬가지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천 하나가 없어졌다 다시 생긴다니 세월이 유구했다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난감한 노릇이다.

“청계천에 물이 흐를 때 서울 인구가 10만 명 이내였습니다. 인왕산, 남산, 북악산 등지에서 계곡을 따라 빗물과 하수 물이 함께 흘러들었지요. 지금 기자가 있다는 경복궁 건너편 출판저널 사무실도 청계천을 향해 계곡물이 흐르던 곳이었어

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삼청동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차 한 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 옹이 《청계천은 살아 있다》와 《한양 이야기》를 통해 서울이야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금은 절판됐지만 서울정도 600년을 기해 《서울 정도 6백년》(전4권)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지금의 종로경찰서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을 따라 경복궁으로 오던 노인들이 오가며 저희 집을 들리곤 했죠. 다행히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또 메모해두었던 게 자료가 됐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외손자의 선생님들에게 책을 썼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수업시간마다 틈틈이 서울의 옛날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서울의 정과 체온을 서울 사는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뜻이 조금은 이루어졌던 셈이다.

이 옹이 서울이야기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다. 서울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의 전속작가로 일본 오키나와에 6년 정도 나가 있었다(유일하게 서울을 떠나 있었던 시기였다). 우연찮은 기회를 살려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던 임진왜란 당시의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함경도 길주에 있던 것을 일본인이 노·일 전쟁 때 전리품으로 가져와 야스쿠니 신사에 바쳤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고 비둘기 집 옆에 숨겨뒀더군요. 우리로서는 의병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비석인데 말이죠.” (‘북관대첩비 반환추진위원회’가 당시 일본 황실과 야스쿠니신사 측으로부터 북관대첩비의 반환 승인과 동의를 각각 받았으나 일본과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이 옹은 일본에 있는 50여 개의 신라종과 고려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황수영 선생이 불교미술로서 한국종을 연구했고 염영하 선생이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한국의 종을 연구했다면 이 옹은 그에 얽힌 전설이나 옮기게 된 사연 등 문학적인 면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해방 후에 조선어학회에서 조선학도대를 조직했어요. 그런데 조선학도대에서 《한글맞춤법》이라는 두툼한 책을 나누어주더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한글이 그렇게 재미있고 오묘할 수 없더군요.”

이 옹이 말년에도 활발히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늦게 깨우친 한글에 대한 매력 때문이다. 뒤늦게 배운 한글이 서울을 기억하게 하고 일본 속 우리 문화재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한글**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